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병원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대형병원의료기관 평가  
대구·경북 1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태영 기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역사회 의료발전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1980년 8월 12일 13개 진료 과목과 181개 병상으로 개원하여 25년이 지난 현재, 24 개의 진료과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90여 명의 우수한 전공의를 보유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센터 중심제 운영, 특수 클리닉 센터 개설, 적재적소의 첨단 의료 장비 도입 등을 통한 진료 및 연구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명실상부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전국 대형 의료기관 평가  
대구·경북지역 1위,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2004년 보건복지부

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모든 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지난 연도의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데 이어 다시 한번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8~11월, 4개월에 걸쳐 전국 대학 병원 42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영양, 응급, 수술 관리체계, 약제 등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지역 전체 병원 중에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국 92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 A 등급을 받아 그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 모든 직원은 한층 제고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발전에 좋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하기 쉬운 작은 일들로부터 '고객만족의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평범 속의 비법'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환우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진들의 서비스 정신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집 같은 병원, 편안하고 정이 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원장 채영희 신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 로비에서 정기 음악회를 실시하여 환우들의 질병과 고통의 불안을 풀어 주는 노력,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외래 환자 및 보호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화 예약 서비스와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시간으로 실시하여 환자의 편의를 돕고, 전문 간호사 배치를 통한 신속한 진료 접수 시스템의 구축, 환자 및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휴게 공간의 마련,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병실로 직접 방문하여 도서 대출을 실시하는 등 고객에 향한 서비스 실천은 끝이 없다. 따라서 이것이 병원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최상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장비

병원은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진들이 늘 선두주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세미나 및 학회, 해외연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료진이 환자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에 걸맞게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다른 예산 집행에 앞서 우선으로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진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PET-CT(양전자방출



무료수술대상자 진료모습

PET-CT센터

PET-CT의료장비

단층촬영기) 장비를 경북 및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주요 질병을 초정밀 컴퓨터를 통해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환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내고 있다

##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광범위한 종합검진 과정을 공개하고 개인별 건강행위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과정을 잘 통합시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또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광범위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된 유질환자나 유소견자는 즉시 해당 특수 클리닉 및 임상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검증된 건강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를 경험한 환자들은 최고의 만족을 얻고 있다.

##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

이 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는 MBC와 공동주최로 무료수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정환경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을 대상으로 '희망의 세상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무료수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의 세상을 만듭시다'라는 행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시행하여 오는 2006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방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프로그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병원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무료수술 대상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명의 대상자들이 무료 수술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희망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각각 전립선 비대증, 외사시, 화상, 다발성 골수증, 좌신부전증, 우심판막장애 등의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술을 마치고 희망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그리스도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로써 소외된 이웃은 물론이며 치료 받아야 할 모든 환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걸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목표로 하는 전인적 케어로,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오지 마을이나 시설 및 단체기관을 방문하여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할 야심 찬 선교봉사도 계획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 전국 최초로 양·한방 협진

한편 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양·한방 진료를 하고 있다. 2004년 1월 26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과 대구한의대 병원은 양·한방의 상호 보완적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을 통해 두 의료원 간 협진이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환자들은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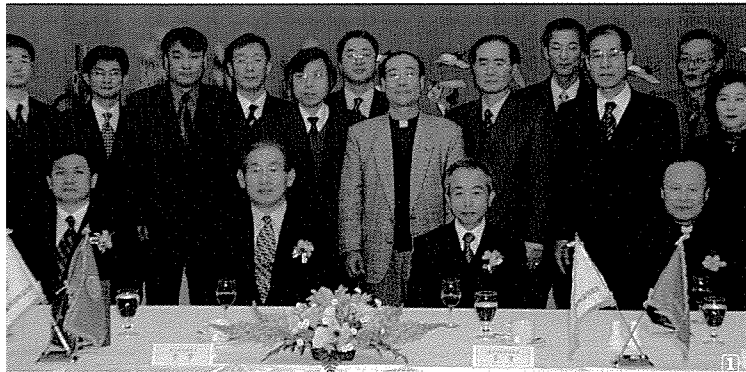
### 선진 의료 기술

산부인과 이태성 교수는 세계 최초로 여성들의 생리통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생리대를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 전창호 교수와 외과 이한일 교수는 유전성 대장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치료 및 조기에 암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북한에 의료 장비 전달

북한 의료장비 기증은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종교적 의미와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방사선 촬영기와 의료 소모품 등 필수 의료장비를 담은 대형 컨테이너 2대를 지난 6월 14일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기증했다.

북한에 의료장비를 기증하게 된 이유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환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안과 전문 교수진이 북한을 방문하여 선진 의료기술 습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다.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의료장비 및 기자재 기증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의료진 교육 및 시술도 할 계획이다.



① ② 양·한방 조인식  
 ③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④ 소아병동 어린이를 위한 산타축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이미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수병원으로 우뚝 자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 자만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직원들은 얘기한다. 국내 우수병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위 점령, 지방화 시대를 겨냥한 특화된 병원으로의 성장을 다부지게 꿈꾸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 정신을 이어받아 치유봉사 정신을 실천하는데 산실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

I N T E R V I E W

## 의료원장 인터뷰

채 영 희 (요셉) 신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부회장  
한국가톨릭병원협회 부회장  
대구가톨릭의료원장

### 1. 개원 25주년에 대한 소감

우선 개원 25주년 '은경의 해'를 맞게 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사랑해 주신 내원객 및 지역주민, 협력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환우분과 지역민들을 위해 힘써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은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삶을 성실히 수행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의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는 많은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드리며 지역민의 사랑을 통해 우수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요양기관으로써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는 환자 중심적인 병원,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우수 병원으로써의 명성과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번 25주년을 기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2. 앞으로의 계획

보다 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병원이 질병만 치유하는 병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더 편리하고 내 집 같은 병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친절 교육 및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진 의료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의료기술을 위해서 미국의 우수 병원들과 국제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많은 연구 활동 및 학회 활동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5~6개 유명한 병원 및 암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환자 교류, 화상을 통한 협진 체제, 진단 의뢰, 외국 병원을 희망할 경우 알선해 주는 제도, 공동 연구, 인력 파견 교육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의료의 질과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 본원이 가톨릭대학병원인 만큼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중심에 두고 소외된 이웃은 물론이며 치료 받아야 할 모든 환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걸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실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병원의 모습을 통해 지역의 의료발전과 사회복지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희망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